

오전 10 시 50 분

인도: 김지원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회기도/사도신경 인도자

찬양 다같이

기도 윤석창 장로

*성경봉독 골 1:24-29 인도자

헌금 35 장(1,2,4 절) 다같이

광고 인도자

찬양 성가대

말씀증거 사명을 받은 김지원 목사
교회의 일꾼 (3)

*찬양 497 장 다같이

*축도 김지원 목사

*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골 1:25, 현대인의 성경)

2023년 2월 22일 저녁 8시

인도자: 김창세 목사

찬양 다같이

성경봉독 롬 4:9-17 인도자

말씀 총체적 칭의론 (18) 김창세 목사

기도 다같이

헌 금 :
다음주 기도 : 윤석창 장로

1.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2.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3. 고통 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2월 26일(주)	신명기	5 - 7
2월 27일(월)	신명기	8 - 11
2월 28일(화)	신명기	12 - 15
3월 1일(수)	신명기	16 - 19
3월 2일(목)	신명기	20 - 22
3월 3일(금)	신명기	23 - 26
3월 4일(토)	신명기	27 - 28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 (2)

둘째로,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전합니다(골 1:25). 고 옥한흠 목사님은 “구원의 감각이 없으면 직분에 대한 감각도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직분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나는 구원의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은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자라게 하신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 “복음의 일꾼”(23 절)].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바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집을 관리하고, 다른 종들을 감독하고, 자원을 분배하고, 사업과 재정 문제를 처리하는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주님의 청지기 직분으로 여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딤후 3:16), 바울은 교회를 돌보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인도하는 임무를 받았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막 4:13).

1. (신 6 장) “곧 너와 네 _____과 네 손자들이 _____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_____하며 내가 너희에게 _____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_____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_____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2. (신 8 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_____년 동안에 네게 _____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_____하라 이는 너를 _____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_____이 어떠한 지 그 명령을 _____지 지키지 않는지...”
3. (산 12 장)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_____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_____에서는 그렇게 하지 _____나라”
4. (신 16 장) “각 사람이 네 _____여호와께서 주신 _____을 따라 그 _____로 _____지니라”
5. (신 26 장)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_____를 행하라고 네게 _____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_____을 다하고 ..”

	한국어 예배	오전 10 시 50 분
주일 예배	Elementary Worship	11 am
	English Worship	2:00 pm
	Spanish Worship	6:00 pm
	수요 기도회(오후 8 시)	Spanish Thurs Prayer Meeting (7 pm)
	새벽 기도회(토):	오전 6 시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 (3)